



서 사람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을 잊지 말도록 하는 배려일 수 있다. 우리의 안목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가라 폭포 관평을 할 때 처음부터 폭포를 구경하기 보다는 근처의 전망대에서 전체 모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트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면 빨리 폭포에 대하여 이해하고 둘러볼 수 있다. 세상을 보는 것도 폭포구경과 비슷하다. 철학도 인생에 관해 이해의 조망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시행착오도 없을 것 같고 방향감각도 잃지 않을 것이다. 세계관이라 결국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결국 철학이긴 인문학이건 무엇을 가르치건 이런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이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퍼즐을 맞출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조각이 더 잘생겼는가 아니라 전체 이미지가 무엇이나이다. 부분에 집착해서는 500조각, 1000조각 퍼즐을 완성할 수 없다. 전체적 조망이 중요하다. 여기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 인간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고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시작한다 (예: 아담의 창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다(최후의 심판, 시스틴 성당의 벽화) 천지창조에서 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러한 삶의 여정을 따라 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삶은 매우 달라진다.

### 세계관의 다양성

다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는 하나이지만 세계관은 하나가 아니다. 예전에 이웃에 국회의원이 살았던 적이 있어 자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참 때 회하다 보니 그분과 나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

만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우리도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한다.

###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상, 꿈, 비전, 계시가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동물 중에는 새와 사슴처럼 우리와 다른 위치에 눈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장면보다는 양옆과 뒤쪽을 더 잘 본다. 반면 호랑이나 부엉이는 눈이 정면에 박혀 있어 멀리 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꾼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안목은 대단히 독특하다.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서구적 세계관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는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것을 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이들에게 믿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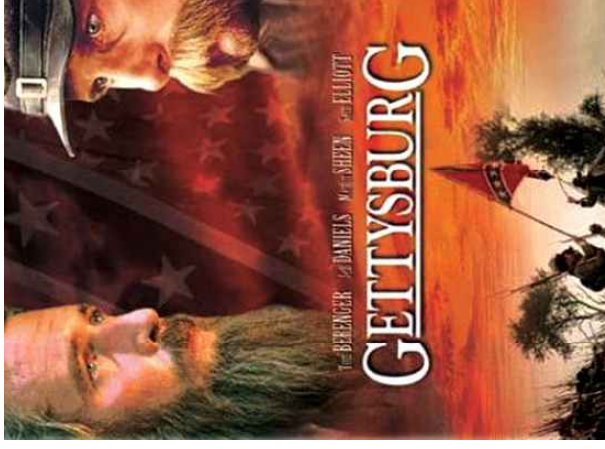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괴로움이 많았을 것이다. 빈영하던 지역에서 광탄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한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지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는 북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호수아 때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



이탈리아 피렌체의 스테이 라인

고 있음을 느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 데도 너무나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것을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은 교육의 핵심으로 선생의 역할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영화 “게티즈버그”는 미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4시간 30분 짜리 대작이다. 미국사에서 굉장한 의미 있고 중요한 영화



이지만 너무 긴 상영시간 때문에 관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졸다가 잔인한 전쟁장면 부분에서만 환호했다. 이를 지켜본 교사는 불을 켜고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면서 해석을 곁들여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같은 영화임에도 관람하는 분위기가 점차 엄숙해지더니 같은 장면에서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사실과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추구경기도 해설가가 없이 추구만 본다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목으로 책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은 워낙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세계관과 문화

세상을 보면 지식이 생긴다(view of the world). 그리고 그 지식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문화의 방향을 정한다(view for the world). 사르망의 ‘하녀와 베르베르의 하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를 그렸지만,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표현이 무척이나 상반된다. 부엌일을 하면서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하듯 정성을 기울여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모습은 작가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건축도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효용성과 기능의 이름 다음이라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건축물과 비교하면 6000년 동안 건축했다는 쾰른 대성당(Cologne Ca-



뉴욕 맨하튼의 스카이라인

thedral)은 기능보다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독일인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도 무역화관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뉴욕의 맨해튼과 그 주변 도시경관의 스카이라인은 세상의 중심이 든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피렌체의 스카이라인은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상하가 나뉘면서 위쪽은 은혜의 영역이고, 아래쪽은 세상으로 구분되도록 설계되었다.

비틀스의 ‘이메진(Imagine)’은 쉬운 멜로디와 히피의 세계관을 축약하여 드러낸 가사로 대중의 감성을 강력하게 파고들어 히트곡이 되었다. 미국의 예술사학자 한스 로크마르크는 1960년대에 비틀스와 같은 강력한 복음가수가 있다면 미국 문화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레논은 당대 최고의 스토리텔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러는 광고다. 광고는 비주얼에서 시작하여 함축적이고 강렬한 카피라이트를 통하여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바라볼(look at) 책이 아니라 통해서(look through) 볼 책이다.”라고 말했다.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인도에서 40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뉴비긴은 영국이 인도보다 더 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에 통탄했다. 뉴비긴의 눈에 비친 영국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안경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 안경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만큼 삶에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성경의 세 가지 진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의 프리즘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견디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설렘과 비전이 보여야 한다. 실제로 천국은 우리 앞에 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 교육과 세계관: 스토리와 비전

스토리와 비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존 재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없다. 세상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진실 되고 강력한 것이 성경이다. 모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며 세계관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브라함, 다윗,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인물로 다가온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죽보가 많이 등장한다. 역대기와 같은 죽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들은 죽보를 통하여 스토리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그 죽보는 신약의 처음에 다시 연결되어 시작된다. 그 신약성경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 또한, 그 죽보는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신약성경의 복음서 어디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다.



신부원 총신대학교 신학과 철학 교수, 분당영교회 합동목사이며 일리노이 대학원 연구수이다. 저서로는 "니고데모의 인경", "신부원의 문화이야기" 등이 있다.



### Worldview Special

# 기독교교육을 생각하다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녕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아닐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 같은 요즘이다.

아니 우리마저 '성경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성경은 가르침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